

권상출 대종회 특별기구 부녀회중흥위원회 위원장 부녀회의 전국적 확산에 최선 다할 터

부산부녀회(회장 권상희)는 안동권문의 유일한 부녀회이다. 권영창 대종회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안동권문의 회원은 안동권씨 아들 딸들인데 아들 중심으로만 대종회가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딸들도 대종회의 당당한 회원으로서 활동했으면 한다. 그 대표적인 종친회가 바로 부산종친회 부녀회이다. 부산부녀회를 중심으로 부녀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전국에서 부녀회로서 유일하게 시조 태사공 추향제에 참석하고 있다. 올해는 17명이 참석했다. 권상희 부녀회장은 부산부녀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안동권문 부녀회의 모범이 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현 부산종친회장과 권영호 고문(대종회 수석 부회장)은 부산부녀회가 다른 지역종친회에도 홍보가 되어 부녀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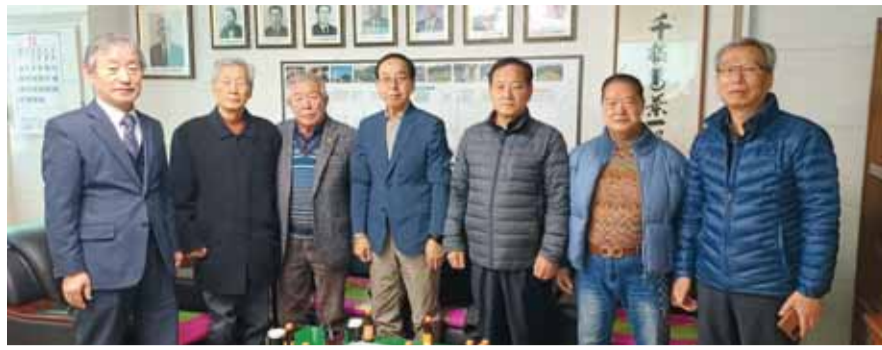
부산부녀회에서 시작된 안동권문의 부녀회가 권상출 부녀회 중흥위원회 위원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부녀회에서는 매년



권상출 부녀회중흥위원회 위원장

권행완 편집국장

권희용 가수 등 전북 장수 오메마을 축친 대종회 방문



권오상 사무총장, 권정택 원장, 권용주 매헌공 종중 고문, 권희용 가수(왼쪽부터)

11월 14일 권희용 가수 등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메마을 출신 권재희 회장, 권용주 매헌공 종중 고문, 권강희씨와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 등 6명이 대종회를 방문했다. 권정택 원장은 화산부원군 후손이자 남강공의 넷째 아드님 현감공께서 전북 장수로 내려가셨다. 현감공 시제가 있을 때면 장수에 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현감공 후손이 목욕을 재계하고 축문을 쓰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감회가 깊었다. 이런 마음으로 축문을 쓰는 바로 선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후손들이 선조님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오늘 그 후손들이 대종회를 방문해 주셨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고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용주 고문은 당시 오메마을은 안동 권씨 집성촌이었는데 400~500가구 살았는데, 권희용 가수와 앞집과 뒤집에서 살았다. 어린시절부터 늘 기타 치고 노래하더니 81세에 드디어 가수가 되었다. 2023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상도 받고 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서 마음이 더없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권희용 가수는 그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가수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종회도 자주 방문하고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다고 다짐했다. 일행은 대종회에 난 화분을 보내 권영창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울산종친회 경남 산청 일원 선조 유적지 탐방



단성향교에서



인곡서당에서

울산종친회(회장 권의호)는 지난 11월 5일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주관으로 각 지역 8개 친목 단체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버스 2대로 경남 산청 일원 선조 유적지를 탐방하였다. 권의호 종친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선조 유적지 탐방 행사가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마음을 활짝 열고 가을의 풍광을 마음껏 즐기시고 많은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라며 이번 탐방 행사를 통해 울산종친회가 더욱더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행은 산청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1700년 초 안동권씨와 성주이씨 문중이 유림들이 학문 연구를 위해 고을의 수령에게 건의하여 건립한 신안정사(新安精舍, 경남 문화재자료)를 견학하였다. 다음으로 고려전기 제 17대 인종 때 건립된 교육시설이며 1728

년(영조4) 장의(掌議) 권대익(權大益)과 재임(齎任) 유응명(柳應應), 김영(金泳) 등이 명륜당을 중건한 단성향교(丹城鄕校,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8호)를 견학하였고, 이어서 조선말기 유학자 송산(松山) 권재규(權載奎, 1835~1893)가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1934년에 건립한 인곡서당(仁谷書堂, 경남 문화재자료 제466호)을 견학하였다. 유적지에 대한 해설은 산청 청장년회 권병국 회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일행은 오찬 후 전통 체험과 함께 전통 한옥마을인 남사에답춘을 둘러보고 버스에 올라 귀가하였다. 이번 탐방 행사를 통해 울산종친회 회원간에 더욱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종친간에 친목과 우애를 돈독히 하는 즐겁고 행복한 탐방 행사가 되었다. 권응목 울산종친회 총무부장

양촌 권근의 종손자 길창군 추향제 봉행

문충공 양촌 권근(權近, 16세, 1352~1409)의 종손자 길창군(吉昌君 諱瞻, 18세, 1402~1485)의 추향제가 11월 13일 종중에 위치한 묘소에서 4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양촌 권근의 맏아들 총제공(總淸公) 권전(權踐)의 둘째 아들로써 영춘현감(永春縣監) 겸 권농병마단련관(勸農兵馬團練判官)을 역임하고 증

직으로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길창부원군에 봉해졌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능동재사 원임이시고 북야공파 고문이신 권두갑(權斗甲, 34세)원임께서 지난 11월 2일 새벽 향년 97세로 추하셔서 4일장으로 11월 5일 안동시 서후면 교리 가족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공개서는 북야공파 판서공(諱: 勳) 후손으로 안동군정, 경북도정을 거쳐 서울시청 요직에서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와 대종회와 파종회, 판서공종중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특히 광풍당(諱: 際可) 문중의 위선사업에 앞장서서 일하셨다. 슬하에는 2남 1녀를 두셨는데 장남 오준은 카이스트 교수로 정년퇴직 후 석좌교수로 있으며, 차남 오철은 대기업 미국 근무 중역으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

동정



▲ 권성균 부사장이 팔도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신임 권 대표이사는 회계, 자재, 물류 등 회사 내 주요 부서를 거치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총무자재부부장·기획재경부부장·국내영업부부장을 역임하며 팔도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했다. 팔도는 '팔도비빔면', '왕뚜껑', '비락식혜' 등 인기 식음료 브랜드를 보유한 식품기업이다. 팔도는 대표이사 선임을 계기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함께 국내외 신규 시장 개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권충화 (썬케이디 회장)이 제11회 광주 상공대상을 수상했다. 권충화 썬케이디 회장은 지난 42년 동안 건물종합관리 사업을 주력하면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및 업무공간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에도 전체 직원 중 여성근로자 64%, 고령자 72%, 장애인 5%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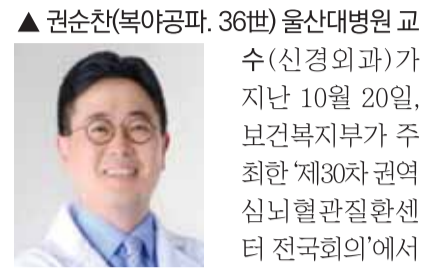


▲ 권순용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지난 7월 강원도 정선군 '쥐눈이콩' 홍보대사 겸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됐다. 권 교수는 지난 20년간 정선에서 생산된 쥐눈이콩을 2~3개월마다 공수해 아침 식사로 먹는 식이요법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권 교수는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정형외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 2009~2017년까지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임상과장, 교수협의회장, 의무위원장을 거쳐 2017~2021년까지 성바오로병원장과 은평성모병원장을 역임했다.



▲ 권미현 꽃예술원 원장이 지난 3일 '2023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모범 소상공인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경주역 역사 조경인테리어 및 설계시공, 지역내 반려식물치료센터

운영 및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특강 강사 활동, ESG경영 실천 그리고 스마트시스템 도입과 24시간 무인꽃자판기 운용으로 비대면시대 활로 개척 등의 공로가 인정돼 이번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권순찬(북야공파, 36세) 울산대병원 교수(신경외과)가 지난 10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30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사업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순찬 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심뇌혈관정책위원회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출혈성 뇌졸중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사업을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권순찬 센터장은 이번 전국회의에서 차기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협의회장에도 위촉됐다. 권 센터장은 경남 산청이 고향이다.



▲ 권계철 세종중남대병원 원장이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권 원장은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나눔 실천과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충남대병원 공공부원장 재직 시 혈액 사업에 관심을 갖고 수혈학회 및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등 대내외 혈액사업 발전에 몰입양면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권혁모 태사문학회 고문이 지난 11월 4일 2023 종묘추향대제에 영녕전 제6실 아헌관으로 헌작하였다. 제6실은 세종의 맏아들인 조선 제5대 문종과 현덕왕후가 배향되어 있다. 문종은 2년 3개월 동안 재위했지만 약 30년 간 세자로 아버지 세종을 보필한 매우 유능한 임금이었다.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이며 현덕왕후 안동권씨는 부정공파 권전의 따님으로 후궁으로 들어가 세자빈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별세했다. 름은 구리시 동구릉에 지리하고 있다.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대양그룹 회장 권혁홍

홈페이지 www.dygroup.co.kr | 대표번호 02-3472-591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5층